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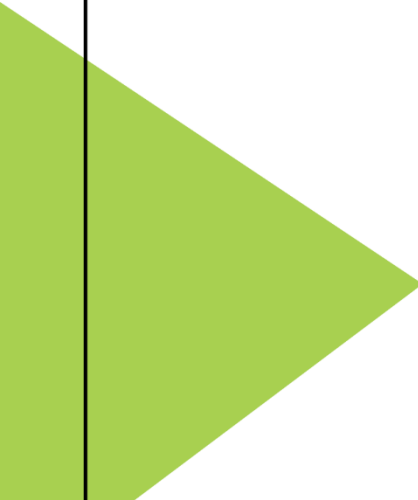



Vol. 2

---

# 의료인문 테마스쿨 보도본부

---



강유정, 남소영, 박명훈.  
박여진, 이호성, 정지환



# Contents

## The doctor

그림을 통해 보는 우리들의 거울 - 정지환

## GaP together

Herstory of doctor - 강유정, 박여진

## 세젤벅

순간을 기억하는 법, 사진 - 박명훈, 박여진

## 가정적인 남자들

네 남자의 남구 알아보기 - 박명훈, 남소영



The doctor

## 그림을 통해 보는 우리들의 거울

정지환 기자

“이 그림은 당시의 시대상과 사람들의 생각,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가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설명이다. 그림을 통해 우리는 작가의 의도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까지 엿볼 수 있다. 11월 6일 모임을 가진 ‘THE DOCTOR 조’ (조장 이준승, 조원 김재원, 김상경, 황지욱)에서 의사나 의학을 그려낸 그림을 통해 과거 의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 더 나아가 미래의 의학을 어떻게 준비하는 지 취재할 수 있었다.



테마스쿨에서 첫 번째로 살펴본 그림은 토마 쿠투르(Thomas Couture)의 ‘피에로의 아픔’이다. 그림에서 여성 한 명이 침대에 누워있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의사가 귀찮은 듯, 혹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환자 옆에 앉아있다. 피에로는 벽을 치며 슬퍼하고 있고 바닥에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와 술병들이 방치되어 있다. 작가는 이 그림을 그린 헌정사에서 “배워서 의사는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병에 대해 아는 사소한 것보다 더 아는 것이 없다.” 라고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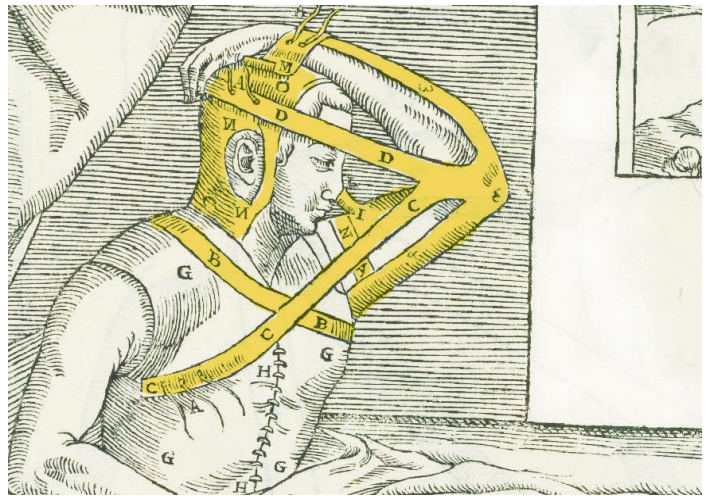


두 번째로 살펴본 그림은 루크 필즈(Luke Fildes)의 "The doctor"라는 그림이다. 앞선 그림과 상황은 비슷하다. 환자가 누워있고 그 뒤로는 슬픔에 휩싸인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의사의 모습은 다르다. 'The doctor'에서는 붉은 옷을 입은 의사가 환자를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로 비슷하게 그려진 그림이지만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두 그림을 비교해보고 각자 느낀 소감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원 김재원 군은 "그림을 통해 바람직한 의사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 동안 공부에 지쳐서 당장 눈앞에 닥친 시험만 준비하기 바빴는데 처음 의대에 입학했을 때의 초심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황지욱 군은 "저는 의사가 아니라 그 뒤의 가족이 눈에 들어왔어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걱정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가족이요. 저도 나중에 임상에 나가서 환자를 기계적으로 보지 않고 그 주위의 가족들까지 챙겨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나머지 조원들도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잡아야겠다는 소감을 발표했다. 두 그림 속 유사한 상황에서 상반된 의사의 모습을 통해 바람직한 의사상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의사상에 대한 토의를 마친 다음으로는 의학에 대한 그림들을 살펴보았다. 이야기를 나눈 그림은 “우석의 제거”라는 그림인데 사실 본과 1학년 의료인문학 수업에서 이미 한 번 보았던 그림이라 익숙함이 느껴진다. 의자에 환자가 당황스러운 얼굴을 한 채로 누워있고 그 주위를 회색뿔 모자를 쓰고 있는 의사와 검은 옷을 입은 신부가 둘러싸고 있다. 당시 사람의 지능이 뒤 떨어지는 이유를 머리 속의 우석(멍청함의 돌) 때문이라 생각해 두개골을 절제해 우석을 꺼내려는 의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다.

다음 그림을 보면 사람이 머리 위에 팔을 올리고 있고 그 주변으로는 자세를 고정하기 위한 철제 구조물이 설치되어있다. 언뜻 보기에는 현대 정형외과 입원실 환자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이 그림은 정형외과와는 관련이 없다. “조직 이식을 통한 복원수술에 관하여”라는 책에 실린 삽화인데 당시의 코성형법을 그린 그림이다. 팔에서 잘라낸 피부를 얼굴에 이식하고 피부가 잘 붙어있을 수 있도록 팔을 고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두 그림을 보면 의학의 발전을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다. “우석의 제거”는 1494년 경에, 성형 수술의 모습은 1597년 경에 그려졌다. 첫 번째 그림이 그려진 이후 100년이 흐른 뒤 두 번째 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우석이라는 있지도 않은 병을 만들어 치료하려던 시절에서 100년 뒤 성형과 이식술이라는 상당히 진보된 의학의 모습이 그림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준승 군은 “책에는 마취 없이 사지를 절단과 같은 큰 수술을 진행하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의학은 정말 큰 발전을 이루어낸 것 같다”는 소감을 말했다. 김상경 군은 “현대 의학에서 널리 인정 받는 치료법이 10년, 100년 후에 원시적인 것으로 평가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낯설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번 ‘The Doctor 조’ 취재에서는 소개된 그림 이외에도 중세시대 의사의 모습부터 백내장 수술 도구까지 수많은 그림들을 볼 수 있었다. 그 속에서 의사는 때로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의학은 미신에서 시작해서 과학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The Doctor 조’의 의료인문테마스쿨은 그림이라는 거울을 통해 의학과 의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주었다.

## Herstory of doctor

강유정, 박여진 기자

페미니즘(남녀평등주의)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이다. 누구 하나 말을 꺼내기 조심스럽고 민감한 주제이다. 하지만 논란이 많은 만큼, 여성으로서든 남성으로서든 피해가지 말고 똑바로 마주봐야 할 주제임은 틀림없다. 그런 페미니즘과 연관된 주제로 의료인문 테마스쿨을 진행하고 있는 조가 있다. 바로 김소원, 김소진, 김승은, 장예지 학생이 참여하는 '여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김은영 교수님)조 이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아내, 엄마, 여의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 조는 여성 의사들이 지위, 소득, 분포 현황 등을 조사하여 현재 여성 의사들의 객관적인 삶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최초의 여성 의사인 엘리자베스 블랙웰, 한국의 최초의 여성 의사인 박에스더 두 분의 삶을 발표하며, 그 분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할 거부당하고 졸업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의사의 길을 나아가신 것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서적인 '82년생 김지영'과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PBL실에서 첫 만남을 가진 김은영 교수님과 학생들

또한 김은영 교수님과 함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소화기내과 교수님, 레지던트, 펠로우 선생님 등 다양한 선배 여의사 분들을 만나 그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 왔는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여쭙보고 미래를 위한 조언을 구하는 활동을 했다. 가장 최근에는 학생들이 김은영 교수님의 동기 분들과의 식사자리에 참가하여 여의사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인생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사진2. 김은영 교수님과 동기분들의 식사에 함께한 학생들

그 중 보도본부가 참여한 활동은 10월 29일에 개최된 '미래의학과 행복한 여성의사'를 주제로 한 을지의대 박영숙 교수님의 강연이다. 김은영 교수님이 직접 초청하신 박영숙 교수님은, 소화기 내과 의사가 바라보는 향후 발전할 미래의학과에 대해 소개하신 후, 힘든 직업인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씀하셨다.

교수님께서서는 전공별로 성별이 편중되는 현상의 원인으로 남성선호의식, 여의사들의 선입견, 육아에 대한 여성의 책임 과부하를 꼽으셨다. 선진국인 미국 또한 여성의사가 교수가 되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여성리더의 비율이 5%정도 인 것을 보면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다. "대학 교수의 경우 아무래도 동일한 조건일 때 여자가 남자에 비해 T.O가 많지 않고, 대학교수의 삶은 전임, 조교수, 부교수 등 각 시기마다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도 조교수 전임까지는 여성이 많은데 결혼하고 애 낳으면서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며 안타까워하셨다. 그러나 여성의사들이 질병관리본부장, 메디포스트 대표의사, 병원장 등으로 활약하며 각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그 길을 간다면 분명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여성의사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과 사회적인 뒷받침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강연이었다.

강연을 마치고 질문 시간에 송정은 교수님께서서는 '어떻게 교수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셨나요?' 라는 학생의 질문에 "학교 때부터도 생각을 많이 했고, 전공의 때는 오히려 교수님들을 보면서 그 꿈을 키웠다.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롤모델이 소화기 내과의 김호각, 김은영 교수님이다. 롤 모델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분들을 보며 꿈을 꾀 보시는 것도 좋고,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최선을 다해보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셨다. 또한 "지금 이미 교수가 되었음에도 이 역량에 맞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이시며 그 역량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렸음을 내비치셨다. 그 답변을 들으신 박영숙 교수님께서서는 여성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다.



사진3. 박영숙 교수님의 강연, 그리고 강연에 참가한 교수님들과 학생들

강연 후 있었던 식사 자리를 통해 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 다른 직업들에 비하면 상당히 고된 일을 하면서 결혼과 육아까지 했었던, 누구보다 바쁘고 정신 없는 시간을 지내오신 교수님들은 하나같이 본인들의 치열했던 20대를 자랑스러워 하셨다. 교수님들이 힘든 현실 속에서 버텨왔던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임을 느끼며,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는 교수님들의 말씀에 가벼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 의사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견들은 존재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희망적인 여성 의사들의 미래를 보여주시며 잘 버텨나가자고 응원 해주시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미래의 여성의사에 대한 테마스쿨인 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편견과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진취적인 대화가 진행되었다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수님들은 모두 힘든 시간을 잘 이겨 낸 분들이며, 차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연을 들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팀원 네 명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이 의료인문 테마스쿨을 하면서 어떤 것을 새로 배우게 되었나요?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느낀 점, 생각의 변화, 가장 와 닿았던 내용 등을 말씀해 주세요.**

A. 여의사의 삶에 대해 들어본 이야기들이 있어서 내가 막연하게 가지게 된 고정된 생각들이 깨지는 느낌이었다. 과거와 달리 여성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고, 우리가 스스로 나서고 노력한다면 여자의사로서 가질 수 있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은 여성의사들이 과를 지원할 때 차별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성의사들이 나서서 도전적인 과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통계 자료였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여성의사의 전공과목 분포와 지위, 소득 등을 통계자료와 교수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나는 의사가 되기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공과목 선택에 여성이라는 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가장 관심을 두면서 활동하였다.

사실 의과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자선배들은 주로 어떤 과를 많이 전공하려 하시는지 나중에 결혼이나 육아를 하게 되면 일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궁금해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선배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면서 이것들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다.

생각보다 과 선택은 중요한 일은 아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해야겠구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김은영 교수님 너무 좋다!

**Q. 교수님들의 강연과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다양한 나이 대와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교수님들의 이야기가 신기하게도 전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모두 공통적으로 육아를 위해서는 전문의를 따고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모두 공통적인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신기했다. 또 여성의사의 미래가 내 생각보다 훨씬 밝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인턴. 레지. 펠로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의 여성의사의 고민 등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는데, 현재는 여성이라는 성 자체만으로 다른 대우를 받지 않고, 주변의 눈치만 보기보다는 본인의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출산으로 인한 휴식이 필요하며 남성의사보다 가사부담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의사가 업무의 여러 가지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 제도적 측면과 사람들의 의식 등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사가 될 미래에는 걱정을 한층 덜 수 있을 것 같다.

교수님이 강의해주신 최신 트렌드인 표적치료제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미국 내에서 여자의사들의 전공이나 교수님들의 재미있는 결혼준비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득과 실을 따지지 말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Q. 이 팀원들은 의사로서, 여자로서, 미래의 엄마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물론 의사로서, 여자로서, 미래의 엄마로서 원하는 삶도 좋습니다.**

A. 좋은 엄마와 아내도 되고 싶지만,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십 년 전부터 생각해 왔던 내 신념은 '나중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또 그에 걸 맞는 삶을 살자'는 것이었다. 사실 예과 2학년부턴 공부에 치여 살다 보니 그런 신념이 조금씩 꺾여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 의사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 거리낌 없이 도전을 하면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실 의사, 여자, 엄마라는 정체성이 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갈 것 같다. 다만, 나라는 한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의 선택이나 자신을 숨길 필요 없는 떳떳한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의사로서, 여자로서, 엄마로서의 선택이겠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결혼이나 육아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지장을 받는다면 너무 후회가 될 거 같아서 그보다는 의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연수나 논문 경력을 많이 쌓고 싶다.

소시민으로서의 삶도 좋긴 하고.. 지구 반대편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사람은 나로 인해 조금 더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도 행복해 지는 것..!

## 순간을 기억하는 법, 사진

박명훈, 박여진 기자

우리는 언제, 어떤 사진을 찍고 언제 그 사진을 보며 다시 추억을 떠올릴까? 예쁜 곳에 갔을 때, 친구들과 놀러 갔을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등등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긴다. 특별한 순간 속에 예쁘게 나온 자신의 사진을 보면 떠오르는 기억과 함께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전부 특별함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특별함의 사이는 그다지 튀지 않는 일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일상도 특별한 순간만큼이나 소중한 삶의 일부지만,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소소한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남기지 않는 편이다. 항상 비슷한 상황, 벗어나고 싶은 모습들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쉽게 떠오를 듯하다. 학기 중 대부분의 시간을 강의실에서 보내며, 공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다 문득 갤러리를 보면 새로 추가되어있는 사진은 많지 않고, 그나마 있는 것들은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ppt에 실린 증례 사진이거나 시험범위인 그림들이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시험과 함께 흘러가고, 그런 사이에 소소하게 일상을 채우던 웃음 그 순간의 소중함은 사진으로 남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놓치기 쉬운 일상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는 활동을 하는 조가 있어 보도본부에서 취재를 나섰다. 이 조는 송현욱 교수님이 만드신 조로, 수업의 제목은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이다. 처음에는 제목을 듣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캐논 카메라 광고에 사용된 문구라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다. 교수님께서서는 원래 본인의 취미가 사진이었고, 사진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은 소재라 생각하셨다 한다. 또한 학교에 사진동아리가 없어 이를 대신하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남겨주고 싶어서 사진촬영을 주제로 선택하셨다고 한다.

의료인문테마스쿨을 시작하고부터, 이 조는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였다. 사진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사진 및 카메라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와 용어를 공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음식 사진, 축제 사진, 수업 사진과 일상사진들을 찍었다. 또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구사진비엔날레'도 갔다.

이 조에서 쿼터방학을 맞아 야외 촬영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를 나섰다. 이 날의 주제는 '사진 촬영하기-이월드 방문수업'이었다. 다 같이 모여 이월드로 향하는 길에도 조원들의 활동은 끊이지 않았다.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모습을 찍어주기를 부탁하며 아무생각 없이 걸었을 때는 금방 갔을 길을 천천히 돌아보며 사진을 찍으면서 걸었다. 소란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신없기도 했지만, 동기들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며 취재를 나간 필자도 기분이 좋아졌고 조원들과 어울려 함께 사진을 찍었다. 교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주시거나 사진을 찍는 조원들에게 사진을 더 예쁘게 찍는 법을 조언해 주셨다. 이월드에 도착한 뒤, 놀이기구도 타고 예쁜 곳에서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말이 더 필요할까. 조원들이 찍은 사진을 보자.



## 수아's pick

광각렌즈로 찍은 사진인데,  
빛을 많이 받아 화사하게 나와서 좋다

## 정환's pick

이월드에 놀러가서 딱 들어가기 전에 찍은건데, 내가 웃는컨셉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느낌으로 찍자고 했다ㅋㅋ 작위적인 느낌이 물론 드는데 유쾌해 보인다.

특히 병조 표정이..>\_<



## 병조's pick


여러 색들이 모여서 조화로움에 대한 감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 송현욱 교수님's pick

### 조원들의 첫 수업 사진





마지막으로 조원들에게 의료인문테마스쿨 수업을 통해 카메라와 사진에 대해 배운 뒤 사진을 찍으면서 전과 다른 점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수아** : 내 사진이 이때까지 이상하게 나온 거는 모델 잘못이 아니라 사진 기자 잘못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사진을 찍을 때 밝기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두운 곳에 찍으면 입자가 굵게 나온다. 속상하다.

**정환** : DSLR이 일단 다르다. 역시 장비 탓이 있다. 조금의 보정이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걸 알았다. 교수님께서 평행선을 맞춰주시거나 밝기를 밝게 하거나 등 조금 보정해주신 게 되게 많았는데, 큰 차이는 아닌데 사진 자체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병조** : 나는 나만 아름다운 줄 알고 있어서 내 사진만 찍었는데 수업이 진행될수록 밖의 풍경들과 다른 인물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가정적인 남자들>

## 네 남자의 남구 알아보기

남소영, 박명훈 기자

유학자인 맹자의 고사를 담은 사자성어 중에 맹모삼천 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여러 번 거처를 옮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고사에서 알 수 있듯 사는 곳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의 조 중에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하는 조가 있어 찾아가게 되었다.

이번 기사는 이건호 교수님을 필두로 한 <가정적인 남자들>조, 송명진, 이원욱, 이원진, 임상우 네 학생의 활동을 담아보았다. 먼저 조 이름만 보고 고개를 갸웃거릴 독자 분들을 위해 조 이름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렇다. 조의 지도교수님인 이건호 교수님이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시고, 조원들이 모두 남자여서 이를 재미있게 여겨 조이름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조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위치한 대구광역시 남구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해왔다. 많은 활동들 중에서 의료인문테마스쿨 보도본부의 남소영, 박명훈 기자는 학기 초부터 그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활동인 <남구청장님과 인터뷰하기>와 <앞산 전망대 오르기>에 동행하였다.

남구는 대구광역시의 중남부 자치구이자 주민등록상 인구 151,890명, 하위행정구역으로 13개의 동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지자체장인 조재구 구청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학기 초부터 인터뷰 일정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매일 10분단위로 빈틈없이 채워진 구청장님의 바쁜 일정 탓에 이번 학기 내에 인터뷰를 하러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드리고, 몇 주간의 기다림을 거친 끝에 10월 24일 아침으로 약속이 잡혔다. 조원들과 기자들은 중간고사가 끝난 후 쿼터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남구청을 방문해 구청장님과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구청장실로 들어가는 조원들의 모습은 어딘가 긴장을 한 것처럼 보였다. 구청장님과 함께 차를 한 잔하며 준비해온 질문과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다보니 어느새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구청장님과 기념사진을 찍고,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다음은 구청장님과의 인터뷰 중 일부이다.

Q : 먼저, 민선 7기 구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구청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첫째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심재탄생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이 원활하지 않아 인구가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5만 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미군부대 주둔으로 지역개발 제한적인 것입니다. 지역개발 제한, 주민통행 불편 초래, 인구감소, 상권 활성화 저해 등 현재 남구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Q :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더란 무엇이며, 저희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인가요?

A : 리더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 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한다면... 인생을 살다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 이를 줄이려면 미래에 대한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젊은 패기와 강한 열정을 불태워 원하시는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구청장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남구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학수고대하던 구청장님과의 만남을 이뤄낸 조원들의 얼굴은 들떠 보였다.



쿼터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과목의 수업이 시작된 29일 저녁, 어둑어둑해진 병원의 암센터 앞에 모인 이건호 교수님과 <가정적인 남자들> 조원들과 함께 두 기자는 대덕식당 근처에서부터 시작하는 앞산 전망대로의 등산길에 올랐다.

산을 오르기 전에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앞산을 처음 가보는 조원들도 있었고, 남소영 기자도 앞산은 처음이라 하였다. 이 대화를 듣고 조원들이 남구의 명소인 앞산을 방문해 우리가 몰랐던 남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주제와 잘 어울리는 활동이라 생각이 들었다.

올라가는 길에 잠시 멈춰서 사진을 남기며 잠시 쉬어가고, 힘들어하는 동기를 챙기며 즐겁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 앞산전망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교수님께서서는 조원들을 앞세워 보내고, 가장 뒤에서 조원들이 잘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며 등산을 하셨다. 덕분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짧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다음은 이건호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 : <내가 사는 곳 알아보기>라는 주제가 상당히 독특한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 처음에는 사실 남구를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웃음) 사실 다른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반대하시더라구요. 하하하

Q : 처음에 구상하신 것은 무슨 활동이었는데요?

A : 학생들을 데리고 작은 연구를 해볼까 했는데... (웃음) 그래서 다른 좋은 활동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과 2학년부터 최소 본과 4학년까지, 적어도 5년을 사는 이 남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사는 곳인 남구가 있는 곳에 대해 알아보면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Q : 의료 인문 테마스쿨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A : 처음 의료 인문 테마스쿨이 생길 때부터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하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강의시간 외에 만나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테마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앞산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대구의 야경을 보며 사진으로 그 순간을 남겼다. 어느덧 차가워진 가을바람과 함께 내려오는 길은 올라오는 길과 다르게 한결 편안했고, 하산 후 있을 식사에 모두의 발걸음은 한결 더 가벼웠다.

취재를 마치며 학교를 다니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온 필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구에 별로 관심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취재를 통해 이 조의 활동을 함께 하며 남구란 동네가 어떤 곳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사는 곳을 불평하기 일쑤지만 잘 알아보면 그 동네만의 장점과 특색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모두 우리가 생활하고 사는 곳의 좋지 않은 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는 곳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면 어떨까?



# 의료인문 테마스쿨 보도본부



대구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16학번들의 이야기